

## 피어선(Arthur T. Pierson)의 성경연구 원리<sup>1</sup>

안명준

(평택대학교, 조직신학)

### 〈한글초록〉

위대한 복음의 전파자였으며 위대한 신학자였던 아더 T. 피어선 박사(A. T. Pierson)의 성경연구 원리를 연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피어선 박사의 생애를 먼저 소개하고 그의 성경관 그리고 성경연구 원리를 제시하였다.

논문의 초반부는 언더우드와 관계를 통해 한국에 오게된 역사적 기록을 소개했다. 피어선의 생애를 통하여 그가 성경을 어떻게 사랑하고 연구하고 가르쳤으며 그가 주장한 성경연구 원리가 무엇인가를 보여 주고 있다. 그는 성경에서 신학의 원리를 찾았고 그 원리를 통하여 성경을 연구하며 해석했다. 피어선은 성경 연구에 있어서 성경은 영감되었고 권위가 있으며 신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함을 제시하였다. 이 전제는 성경 자체의 특성에 관한 중요 진리를 인식하는 것이 성경 연구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본 것이다. 피어선은 성경을 연구하는 태도에 있어서 진지함, 정직함 그리고 초자연적인 요소를 의심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당연한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투고일: 2011.3.17. 수정투고일: 2011.4.14. 게재확정일: 2011.4.21.

<sup>1</sup> 이 논문은 2009년도 평택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의 말씀은 문을 연다고 한다.

피어선은 탐구와 명상, 비교, 기도, 믿음, 그리고 순종에 의해 우리가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우리가 성경연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밝히며, 높이며, 영광스럽게 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함으로써 그의 목회사역과 선교사역을 감당함으로써 미국과 영국뿐만 아니라 한국까지 크게 영향을 주었다.

\* 주제어: A. T. 피어선, 성경, 성경의 영감, 신학원리, 성경의 유추, 믿음의 유추

## I. 서론

2011년은 피어선의 영적 제자인 언더우드(H. G. Underwood)<sup>2</sup> 한국

<sup>2</sup> 조상열, 『피어선기념성경학원』(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37. 피어선 기념성경연구원 초기에 원장이었던 언더우드와 피어선의 친분의 시작은 언더우드가 1887년 11월 피어선 박사에게 보낸 서한이 세계 선교평론(*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에 실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언더우드는 뉴저지 뉴 브린즈 워크(Dutch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현재 New Brunswick 재학 중이던 1883-1884년 사이에 피어선 박사가 이 학교에서 행한 '앞으로 나아가라'(go forward)라는 제목의 연설을 경청한 적이 있으며 그것이 자신에게 많이 유익했다고 말하고 있다. 피어선은, "교회는 완전히 열려져 있는 (선교의) 길을 기대할 수는 없으며, 교회가 길이 열리는 만큼 앞으로 나아간 후 장애물에 직면했을 때에 모든 장애물은 제거되었다."고도 전하였다. 그 후 1893년 2월경에 언더우드는 피어선이 런던의 메크로폴리탄 장막교회에서 스필전의 후임 설교자로 봉사하고 있을 때 조선선교의 후원을 위해 영국성서공회와 종교서회, 런던선교회를 방문하면서 서신에서 피어선의 이름을 언급한다. 그리고 1900년 뉴욕 카네기 홀에서 열린 세계기독교선교총회(Ecumenical Missionary Conference)에서 피어선 앞에서 선교현장에서의 교회의 자급이라는 주제로 분과발표를 하였고 편집장인 피어선이 그 논문을 세계선교평론(H. G. Underwood, "An Object-Lesson in Self-Support,"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13 (June 1900): 443-49)에 실어주었다. 또 언더우드는 1908년 자신의 저서 『조선의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부름』(H. G. Underwood, *The Call of Korea Political Social Religious* [New York: Fleming H. Revell, 1908])에 피어선 박사에게 추천사를 부탁하였다. 이 책은 한글로 번역되었다. 호레이스 G. 언더우드, 한동수 역, 『와서 우릴 도우라』(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에 온지 126년이 지났으며, A. T. 피어선(Arthur T. Pierson) 박사가 방문한지 101년이 되었다. 전설적인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을 복음화 시키고 일제 강점기에 사회를 변화시켜 오늘날 우리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안타깝게 혼동과 위기 속에서 흔들거리고 있다. 특히 신학을 바르게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신학을 바르게 실천하지 못한 목회자들에 의해 한국의 기독교는 점점 사회와 사람으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있다. 바로 이런 신학교육의 문제점이나 신학과 교회의 혼란함은 한국 교회의 앞날을 암울하게 한다.<sup>3</sup> 이런 심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종교 개혁자들의 정신을 이은 아더 피어선 박사에게 대한 신학 연구는 좋은 해답을 준다. 위대한 교육자요, 신학자요, 선교사며, 목회자인 피어선 박사의 업적을 바르게 정리하고 평가하는 일은 후세대를 위해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현재 피어선 박사의 저술이 매년 번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어선 박사에게 대한 학문적 연구가 한국 신학계에 많이 소개되지 못한 실정이다. 피어선의 성경관과 관련되어 연구된 논문으로 유윤종은 피어선이 성경을 문학적 언어학적으로 이해했다고 본다, 그의 연구는 피어선의 유기적 성경관을 다루는데 피어선은 성경은 유기체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상호관계를 갖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sup>4</sup> 그는 피어선은 성경을 하나님의 책이자 인간의 책이라고 주장했다고 하면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야할 역사적, 문학적 요소들이 있다는 점을 진술하고 있다. 피어선의 성경관에 대한 연구로 신현수는 성육신적 원리가 피어선의 성경관의 중심이라고 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성경은 하나님의 불변의 성품을 보여주고, 성경의 영감과 권위 그리고 통일성을 다룬다. 또 피

<sup>3</sup> 안명준, “한국교회의 신학적 문제점,” 『한국교회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안명준 편 (서울: 이컴비즈넷, 2006), 15-34.

<sup>4</sup> 유윤종, “피어선의 문학적 언어학적 성서이해,” 『복음과 신학』 11 (2009): 198-212.

어선은 성경은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써 사람의 책임 것을 말했다고 밝힌다. 그리고 피어선은 완전성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이 사람의 책이라고 논증했다고 한다.<sup>5</sup> 이 두 논문의 경우 피어선의 성경관을 2개의 구도 즉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책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것이 특징이다.

피어선의 성경 해석과 관련하여 다룬 안명준의 연구는 피어선의 해석학의 특징가운데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Scriptura sui ipsius interpres*)하는 원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sup>6</sup> 이 원리는 루터(M. Luther)와 칼빈(John Calvin)의 전통을 이어서 피어선은 자신의 중요한 원리로 사용하였다.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신학을 어떻게 다루고 세우는 가 즉 신학 원리에 대한 것이다. 전통신학은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과 타당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위대한 복음의 전파자였으며 성경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아더 피어선 박사의 작품에 나타난 성경연구의 원리를 연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sup>7</sup> 피어선 박사의 생애를 먼저 소개하고 그의 성경관 그리고 성경연구의 원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피어선의 생애

A. T. 피어선(Arthur Tappan Pierson, 1837년 3월 6일 ~ 1911년 6월 3일)은 미국의 목회자, 선교사,<sup>8</sup> 신학자이다. 그는 기독교 근본주의의 선두주자였으며 많은 책을 썼다.<sup>9</sup> 특히 한국의 언더우드와 프린스턴 신학

<sup>5</sup> 신현수, “피어선의 성서관,” 『복음과 신학』 12 (2010): 142-56.

<sup>6</sup> 안명준 외, “피어선의 신학적 해석학,” 『신학적 해석학 (하)』 (서울: 이침비즈넷, 2009), 48-77.

<sup>7</sup> 아직 한국에 피어선의 신학의 특징과 장점이 소개되지 못한 실정이라 긍정적 평가를 먼저시도 한다.

<sup>8</sup> 참고로 피어선 박사의 선교에 관한 연구 고광국, “피어선의 선교전략과 실제에 관한 연구.” 신학박사학위논문, 평택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2009.

<sup>9</sup> 대표적인 원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The Crisis of Missions* (New York, 1886), *Many Infallible Proofs: Chapters on the Evidences of Christianity* (1886), *Evangelistic Work in Principle and Practise* (1887), *Miracles of Missions* (4 vols., 1891-1901), *The Divine Art of Preaching* (1892), *The Heart of the Gospel* (sermons; 1892), *New Acts of the Apostles* (1894), *Lessons in the School of Prayer*

교의 교회사가 R. E. 스피어(R. E. Speer) 교수, 이슬람 선교의 개척자 사무엘 즈웨머(Samuel Zwemer), 기독교청년회(YMCA) 운동과 에큐메니컬운동의 지도자로 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존 모토(John R. Mott), 피어선 때문에 개종한 바이올라 대학교 설립자 호튼(T. C. Horton) 목사, 그리고 한국의 선교사였던 게일(J. S. Gale)박사등 수많은 선교사와 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다.<sup>10</sup> 특히 1887년 새문안 교회가 시작된 해에 언더우드와 A. T. 피어선 박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편지를 보낼 정도로 깊은 관계가 있었다. 후에 언더우드는 피어선 성경기념학원의 교장을 지냈다.

그는 친구인 무디(D. L. Moody)와 함께 미국의 복음주의 운동을 주도하며 1886년 미국 노스필드에서 학생자원운동 단체(The 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s)를<sup>11</sup> 창설하여 수많은 젊은 학생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심어 주었고, 여기에 힘입어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다.

A. T. 피어선의 조상 중 처음으로 미국에 도착한 사람은 뉴악(Newark)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의 초대목사였던 아브라함 피어선(Abraham Pier-

(1895), *Acts of the Holy Spirit* (1895), *The Coming of the Lord* (1896), *Forward Movements of the Last Half Century* (1900), *God's Living Oracles* (1904), *The Bible and Spiritual Criticism* (1906), *The Bible and Spiritual Life* (1908), *Godly Self-Control* (1909), *Knowing the Scriptures* (1910).

<sup>10</sup> 참고로 이덕주, “피어선기념성경학원 설립과 초기역사(1911-1945)”, 『복음과 신학』 12 (2010): 304-75.

<sup>11</sup> 학생자원운동(The 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s)은 1886년 미국 매사추세츠 노스필드(Northfield, D. L. 무디의 고향)에서 미국의 대학생들에게 복음과 선교에 대한 도전을 주기 위하여 A. T. 피어선 박사(Arthur Tappan Pierson)가 D. L. 무디(Moody)와 함께 설립한 해외 선교를 위한 학생 선교운동 단체이다. 1886년 험몬 산(Mt. Hermon)에서 하버드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예일 대학교 등 미국 및 캐나다의 89개 대학에서 251명의 대학생 대표들이 7월 6일부터 8월 2일까지 대학생 YMCA Summer Bible School에 참석하였다. 그 집회에서 당시 선교와 설교에서 뛰어난 부흥사 피어선 박사(A. T. Pierson)가 세계선교에 대한 인상적인 설교를 통하여 이 운동을 창설하도록 제안하였다. 중국 선교사 윌리엄 아쉬모어(William Ashmore)는 “우리 모두는 가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가야 한다”(“All should go, go to all”)라는 유명한 설교가 대학생들에게 큰 영적 감동을 주었는데 이 운동의 태동의 계기가 된다. 이 운동의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많이 와서 전도, 교육, 봉사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son)이다.<sup>12</sup> 주민들이 그들의 마을을 뉴왁(Newark)이라고 고쳐 부른 것은 그의 출생지인 영국의 트렌트 뉴왁(Newark on the Trent)의 지명을 따왔기 때문이었다. 아브라함 피어선 목사의 아들 아브라함 피어선 2세(Abraham Pierson, Jr.) 역시 목사였는데 예일 대학교의 설립자 중의 한 명이며 초대총장을 역임하였다.<sup>13</sup>

A. T. 피어선의 부친인 스티븐 피어선(Stephen Haines Pierson)은 장로교의 장로로서 열 명의 자녀들을 장로 교인으로 길렀는데 피어선은 주일이면 스프링가 장로교회의 교회학교에 다녀야만 했다. 스티븐 피어선과 그의 아내 셸리(Sally ann Wheeler)는 자녀들에게 철저한 복음주의 교육을 시켰다. 피어선의 아버지는 아더 테이펀(Arthur Tappan) 상회에서 현금 출납계의 책임을 맡았으며, 회사의 기밀 서기직도 겸하였다. 그는 건강한 장로교회의 장로로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교리문답집과<sup>14</sup> 성경의 31절들을 암송하게 했으며 아침 저녁으로 가족예배와 주일예배에 철저하였다. A. T. 피어선은 주일학교에서도 철저하게 성경을 공부하였다. 당시 이것은 후에 자신이 성경의 영감을 확신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7살 때에 교회 주니어 선교단에 참가하여 일찍이 선교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되었다. 피어선은 젊은 시절 선교에 비전을 가졌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 포기하였으나 이런 그의 열망이 은퇴 후에 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그의 꿈이 실현되었다.

나이 11세 되던 1848년 워싱턴 스퀘어에 위치한 마운트 워싱턴 고등학교

<sup>12</sup> 아브라함 피어선(Abraham Pierson)은 토마스 피어선(Thomas Pierson)의 아들로 1611년 영국 요크셔의 브래드포드(Bradford, Yorkshire)에서 태어났다. 1632년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1639년 5월 10일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메사츄세츠 주 린(Lynn)에 도착하여 회중교회 목사로 안수를 받고 아비가일 미첼(Abigail Mitchell)과 1640년 경에 결혼하여 10명의 자녀를 낳았다.

<sup>13</sup> 데이나 L. 로버트, 『아더 피어선과 복음주의 운동』, 박달진 역 (서울: 도서출판 양서각, 1988), 27.

<sup>14</sup> 피어선의 선조 아브라함 피어선은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미국의 원주민 모호칸 족들을 위해 교리문답서를 번역하여 선교하였다. 이런 선조의 정신이 스테판 피어선으로 하여금 자녀들이 교리문답을 철저하게 공부하도록 전승된 것 같다. 피어선의 성경관의 권위와 영감에 관한 주장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곳이 여러곳에서 발견된다.

원(the Mount Wahington Collegiate Institute)에 등록하여 그곳에서 헬라어와 라틴어를 배웠고 12세 때 헬라어 신약성경을 읽었으며 뉴욕시 테리타운 언덕 허드슨에 위치한 고등학교(Collegiate Institute at Tarrytown, Hudson)에 입학하여 그의 뛰어난 학문의 능력과 시, 음악, 어학, 그리고 화술 등의 재능이 좋았다. 1853년 뉴욕 주 클린턴(Clinton)에 있는 해밀턴 대학(Hamilton College)에 입학하였다. 재학 중 시학, 수사학, 그리고 어학에 몰두하였고 동료 젊은 토머스 베일리 알드리히(Thomas Bailey Aldrich)는 피어선의 시를 높이 평가해 줌으로 피어선의 문학적 포부를 더욱 북돋아 주었다.

1857년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Union Theological Seminary)를 졸업하고 설교자 인허를 받은 것은 1860년 4월 3일이었다. 장로교회 담임목사였던 사무엘 벌차드박사는 목회훈련을 충실히 받도록 후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1860년 5월에 뉴욕시 제3노회에서 장로교 목사로 안수를 받았다. 1860년 여름 두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고 그 중에 뉴욕 주 빙햄턴(Binghamton)에 있는 제일회중교회의 청빙을 수락하였다. 남북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피어선은 제일회중교회의 재정적 곤란으로 가정을 돌볼 수 없기 때문에 빙햄턴에서의 사역을 그만두었다.<sup>15</sup>

1863년 8월 그는 뉴욕 주 워터포드(Waterford) 시에 있는 장로교회에 부임하여 1869년까지 최선을 다하였다. 그의 명성이 더해감에 따라 피어선은 여러 이름 있는 장로교회들로부터 청빙요청을 받았으나 1869년 2월 미시건주의 디트로이트(Detroit) 시에 있는 영향력 있는 포트 스트리트 장로교회(Fort Street Presbyterian Church)에 부임하게 된다. 그곳에서 목회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교회가 불이 났으나 다시 재건하였고 많은 직책을 맡아 지역의 학교와 노회 일에 영향력있는 사역을 하였다. 인디애나폴리스

<sup>15</sup> D. L. 피어선, 『아더 피어선의 생애와 신앙』, 110.

의 제 2 장로교회(Second Presbyterian Church in Indianapolis)로부터 도시복음화의 프로그램은 피어선의 손에 자유롭게 맡긴다는 약속을 받고 1882년 7월 19일로 13년에 걸친 포트 스트리트 장로교회의 목회를 사임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피어선은 자신의 목회철학과 성도들의 의견이 맞지 않아 1883년 5월에 부임한지 9개월 만에 사임하게 된다. 인디애나폴리스 제 2 장로교회는 지금도 미국에서 영향력있는 교회 중에 하나이다.

1883년 여름 피어선은 기독교 실업인 존 워너메이커(John Wanamaker)가 남부 필라델피아에 창립한 주일학교와 관계된 베다니 장로교회(Bethany Presbyterian Church)의 청빙을 받고 10월부터 필라델피아에 서의 목회를 시작하였다. 1891년 10월 찰스 스펄전(C. Spurgeon)이 시무하던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테버너클 교회(Metropolitan Tabernacle Church)에 청빙 되었다. 1893년 6월 메트로폴리탄 테버너클 교회에서 6,000명의 청중을 향해서 고별설교를 한 후 가족과 노모가 기다리는 미국으로 돌아왔다.<sup>16</sup> 1895년 2월 2일 아침 그의 친구 고든(Adoniram Judson Gordon)박사가<sup>17</sup> 서거하자 보스턴 선교훈련원(현 Gordon College) 실행위원회는 학교명을 고든 선교훈련원으로 바꾸고 피어선으로 하여금 고든을 후계하여 교장 직을 수행였다.<sup>18</sup> 한국에 오기 전까지 피어선은 무디와 더불어서 노스필드 대회(Northfield Conferences)를 주도했으며, 영국의 케직 사경회(Keswick Convention)에 주 강사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저술 활동에 그의 삶의 마지막을 보냈다. 그는 70여권에 이르는 저술과 수많은 논문 및 팸플릿을 기록하였으며 13,000편에 달하는 설교와 강의를 하였다.<sup>19</sup>

<sup>16</sup> D. L. 피어선, 『아더 피어선의 생애와 신앙』, 286-318.

<sup>17</sup> 고든 박사는 아버지 존 칼빈 고든(John Calvin Gordon) 침례교 집사의 아들로 1836년 4월 19일 뉴 햄튼에서 태어났으며 무디와 피어선은 서로 소중한 친구들이었다. 고든은 설교자와 작곡자였으며 이 학교를 세웠다.

<sup>18</sup> 데이나 L. 로버트, 『아더 피어선과 복음주의 운동』, 321-31.



피어선은 1910년 결혼 50주년 그리고 목회사역 50주년을 맞이하여 전격적으로 어릴적의 비전이었던 선교여행을 결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해 10월 19일 미국을 출발하여 한국에 와서(1910. 12. ~ 1911. 1.) 선교사들을 위한 성경강해를 하였으며, 매우 열악한 여건에서도 성경을 공부하는 모습에 크게 감동 받아서 성경학교 설립을 약속하였는데 질병이 심해져서 고국에 돌아간 뒤에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A. T. 피어선 부부는 슬하에 2남 5녀를 두었다. 그의 일곱 자녀들이 모두 선교사가 되었다.<sup>20</sup>

### III. 신학원리로서의 성경

피어선은 바로 성경의 사람이었다. 피어선에 있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그리고 자신의 성품과 죄인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계시하는 살아있는 초자연적이며 불변한 진리의 말씀이었다. 그는 성경을 어렸을 적부터 심히 사랑하고, 성경을 평생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마지막 인생의 끝에 한국 땅에 와서 성경을 가르쳤으며 조선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모습에<sup>21</sup> 감동되어 후에 피어선 기념 성경학원을 세

<sup>19</sup> 최근 피어선 박사에 대한 새로운 자료가 그가 교장으로 있던 고든대학교와 그리고 프린스턴 신학교와 예일대 등에서 발굴되었다. 특별히 그의 프린스턴 신학교 출신인 장남 델라반 피어선(D. L. Pierson) 목사가 기증한 자료들이 많았다.

<sup>20</sup> 이광희, 『피어선 목사의 생애와 사상』(평택대학교: 피어선기념성경연구원, 1999), 30-31. 그의 장녀 헬렌은 프레드릭 커티스와 결혼해서 일생토록 일본에서 선교하였고 차녀 로라는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들을 상대로 선교활동을 하였다. 안나와 에디스는 뉴욕시와 필라델피아에서 여성정착 사업에 종사하였고 훗날 안나는 파푸아 뉴기니에서 1년간 선교활동에 종사하였다. 장남 델라반은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한 후 부친과 함께 『세계선교 논평』지를 위해 일하였고, 차남 패런드는 의사로서 건강의 손상으로 일을 그만둘 때까지 중남미에서 선교활동에 헌신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딸인 루이스는 인도에서 선교활동을 벌이다가 1903년에 사망했다. 또 루이스는 뉴욕 주 포 시에 소재한 YMCA와 매사추세츠 주 로웰에 있는 YMCA에서 비서 일을 하다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여성선교회인 여성연합선교회 산하에서 자원봉사를 하였고 인도에서 빈민층 여성들과 소년들을 위해 일하다가 장티푸스로 사망하였다. 후에 그의 가족들은 그녀를 기념해서 인도 중부에 있는 도시, 누동(Nudong)에 기념 예배당을 설립하였다.

<sup>21</sup> “The Beginnings of the Arthur T. Pierson Memorial Bible School in Seoul, Korea: From

우게 되는 기초를 놓았다. 피어선 박사는 평생 성경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가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방법을 가르치는 일에 그의 온 사명을 다했다. 그에게 있어서 성경은 신학의 원리였다. 성경에서 신학의 원리를 찾았고 그 원리를 통하여 성경을 연구하며 해석했다. 우리는 피어선의 그런 성경연구 작업의 과정을 추적하고 분석함으로써 그의 성경연구의 원리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피어선은 성경연구에 관한 많은 글을 남겼다. 그가 영국의 엑스터 홀 강연(Exeter Hall Lectures)도 여러 차례 했고 1893년 성 바울 선교협회(St. Paul's Missionary Society) 회년 행사에서 주제 강연을 하였으며 1897년에는 빅토리아 여왕 재임 중 60주년 축제에 연설하였으며, 1904년 YMCA 60주년에서 연설하였다. 1907년 조지 경 작고 후에도 세 번째 엑스터 홀 강연을 하였다. 이런 그의 강연은 그의 성경에 대한 풍성한 연구들을 보여 주는데 특별히 성경관과 관련된 책이 많이 출판되었다. 『성서의 영적 이해』, 『성서와 영적 비판』, 그리고 『성서와 영적인 삶』이다. 그 후에 50년간의 성경 공부를 요약한 『성경연구의 진수』가 있다.<sup>22</sup>

피어선은 성경은 가장 높은 도덕적 탁월성과 아름다움을 갖고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결합시키는 거룩한 저자의 계시라고 한다.<sup>23</sup> 성경은 진리와 본분에 대해 틀림없는 기준이라고 한다.<sup>24</sup>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말씀 속에서 하나의 확실한 기준, 옳고 정확하고 믿을 만한 것을 주셨다고 한다.<sup>25</sup> 피어선은 말하기를 성경의 내용과 구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와 영감성 그리고 교리와 행위의 표준에 대한 모든 공격에 대하여 승리에 찬 대답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하며 성경은 스스로를 증거한다는

Printed Circular,” *Record of Christian Work*, 35 (1919): 19. 재인용 조상열, 『피어선기념성경학원』, 43.

<sup>22</sup> 데이나 로버트, 『내가 올때까지 완수하라』, 유윤종 역 (서울: 도서출판 B&A, 2004), 386-87.

<sup>23</sup> A. T. 피어선, 『고르디우스의 매듭』, 양유성 역 (천안: 아이디프리티팅, 2010), 117-18.

<sup>24</sup> A. T. 피어선, 『성서의 영적 이해』 (서울: 보이스사, 1985), 19.

<sup>25</sup> A. T. 피어선, 『성서의 영적 이해』, 276.

성경 자증의 교리를 주장한다.<sup>26</sup>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거울이라고 한다,<sup>27</sup> 이런 표현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도 나타난다.<sup>28</sup> 칼빈은 성경이란 신실한 거울에 비추어 보아 자신을 올바르게 인식하기를 요구한다고 한다.

피어선은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안에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고 한다. 연구자는 구약 성경의 모든 책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며, 신약에서 그리스도 자신을 만나게 된다고 한다.<sup>29</sup> 피어선은 성경을 아는 참다운 길이란 번연이 부른 “해석자의 집”처럼 여기는 것인데, 그곳에는 신비의 열쇠인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열리는 수많은 방들이 있다고 한다.<sup>30</sup> 그분과 연관짓지 않고서는 이해가 되지 않으며, 영감된 기록된 말씀과 영원한 로고스인 말씀은 영원토록 떼어놓을 수 없는 데 바로 성경이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스도는 완성된 성경이며, 성경은 그림이고 그리스도는 실제의 인물이라고 한다.<sup>31</sup>

피어선은 성경 연구의 중요한 목적인 살아 계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 쓰여진 말씀의 주요 임무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인도하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기 때문에, 그 영감과 권위는 주장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sup>32</sup>

피어선의 성경관의 특징은 그가 성경의 유기적 통일성을 중요하게 여기

<sup>26</sup> A. T. 피어선, 『성경연구의 진수』, 홍성국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1), 20.

<sup>27</sup> A. T. 피어선, 『성서의 영적 이해』, 160.

<sup>28</sup> John Calvin, *Institute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McNeill, trans. F. L. Battle (Philadelphia: Westminster, 1960), 2, 2, 11.

<sup>29</sup> A. T. 피어선, 『성서의 영적 이해』, 161-66.

<sup>30</sup> A. T. 피어선, 『성경연구의 진수』, 49.

<sup>31</sup> A. T. 피어선, 『성경연구의 진수』, 49.

<sup>32</sup> 데이나 로버트, 『내가 올때까지 완수하라』, 392.

며 성경연구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말한다. 그는 성경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아서 성경의 여러 부분은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라고 하며, 그 지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상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사람이 성경의 어떤 부분을 고립시키거나 분리시켜 분석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연관 한 부분으로서 분석할 것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칭성을 가진 하나의 완전한 유기체적 조직체라고 한다. 성경은 본질에 있어서 전체로서 그리고 완전한 것을 보아야 한다고 한다. 일관성을 보아야 한다고 한다. 통일성은 구약과 신약의 이중 구조를 가지면서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함께 연구되어야 한다고 한다.<sup>33</sup> 피어선의 이런 이해는 칼빈의 성경관과 맥을 함께하는 것이다.

#### IV. 피어선과 성경연구

피어선은 그가 빙햄톤 회중교회에서 목회할 때 강령술의 빠진 성도들을 치료하였는데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시험하여 거짓된 것들과 교사들로부터 성도를 구원했으며 성경의 원리를 철저하게 알려주어서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는 것을 따르도록 하였다.<sup>34</sup> 워리포드에서 목회할 때는 성경에 관해 명료하고 고무적인 교사로서 널리 알려져서 주일 오후 교회에서 성경공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sup>35</sup> 또 피어선은 성경공부에서 단지 성경에 대한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스스로 말씀을 먹는 방법을 가르쳤다.<sup>36</sup> 피어선은 베뢰아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나라는 말씀에 강조하면서 성경을 탐구할 때는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습관적으로 해야 할 것을 언급한다.<sup>37</sup>

<sup>33</sup> A. T. 피어선, 『성경연구의 진수』, 65.

<sup>34</sup> D. L. 피어선, 『아더 피어선의 생애와 신앙』, 109.

<sup>35</sup> D. L. 피어선, 『아더 피어선의 생애와 신앙』, 120.

<sup>36</sup> D. L. 피어선, 『아더 피어선의 생애와 신앙』, 142.

## 1. 성경연구에 대한 신학적 전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우리가 받아드려야 할 몇 가지 주요한 신학적 전제가 있다고 피어선은 주장한다.<sup>38</sup> 이것은 성경 그 자체의 특성과 관련된 것이다.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인해 만들어졌다는 확신을 절대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면해야만 한다고 한다. 그는 딤후 3: 16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영감을 인정한다. 성경은 인간의 학문, 언어, 단편기사, 작가들과 그들의 스타일과 같은 인간적인 형태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그 위에 더해진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입김이 불어넣어진 책이라고 선포하는데, 그것은 언어의 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불어넣는 점을 뜻한다고 한다. 그것은 마치 첫 사람의 몸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입김을 불어넣으므로 생명이 된 것과 같다고 한다, 그래서 성경은 죽은 말씀이 아닌 살아있는 책이라고 한다.<sup>39</sup>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 자신의 책이며, 모든 면에서 신적이 안내를 위한 책으로 믿어야 한다고 한다.<sup>40</sup>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적 기원을 갖고 성령에 의한 영감으로 기록되었으며, 믿음의 안전한 안내자이며, 실천을 위한 확실한 모형이라고 한다.<sup>41</sup>

두 번째로 성경은 사사로이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 말은 성경의 기원에 대하여 말하는 것으로 예언자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로 미래의 신비를 해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성경의 기원은 해석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다. 성경을 하나님으로부터

<sup>37</sup> A. T. 피어선, 『성경연구의 진수』, 21.

<sup>38</sup> A. T. 피어선, 『성서와 영적 비평』 (서울: 보이스사, 1985), 43-44.

<sup>39</sup> A. T. 피어선, 『성경연구의 진수』, 29.

<sup>40</sup> A. T. 피어선, 『성서의 영적 이해』, 18

<sup>41</sup> A. T. 피어선, 『성서의 영적 이해』, 20.

온 기원과 그 권위를 지닌 궁극적인 것으로 받아드려야 한다고 한다.<sup>42</sup> 예를 들면 피어선은 요한 계시록 5장에는 성경의 장엄함과 권위에 대한 그림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권위가 성경에 제시된 사실을 피할 수 없다고 한다.<sup>43</sup>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자체가 신적 기원을 내적으로 증거한다고 한다.<sup>44</sup>

셋째로 우리는 성경의 이러한 예언들이 인간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한다. 성경은 인간의 의지나 마음에 의해 되어진 책이 아니며, 하나님 자신의 생각, 마음, 뜻, 그리고 자신의 모든 품성뿐만 아니라 특히 죄인들을 향한 자신의 은혜로운 태도를 드러낸다고 한다.<sup>45</sup> 성경의 예언들은 신적 계획에 의하여 움직인다고 한다. 성령에 의하여 일어난다고 한다.

이렇게 피어선은 성경 연구에 있어서 성경은 영감되었고 권위가 있으며 신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함을 제시하였다. 이 전제는 성경 자체의 특성에 관한 중요 진리를 인식하는 것이 성경 연구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본 것이다.

## 2. 성경연구를 위한 연구자의 자세

피어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어떻게 성경에 접근해야겠는가라고 묻는다. 피어선은 자신의 50년 동안 성경 연구를 근거로, 그의 책 『성서와 영적 비평』에서 성경 연구에 대한 참된 자세를 3가지로 설명한다.<sup>46</sup> 이것은 그가 가장 사랑했던 성경연구의 비법이며 바로 성

<sup>42</sup> A. T. 피어선, 『고르다우스의 매듭』 118.

<sup>43</sup> A. T. 피어선, 『성경연구의 진수』, 27.

<sup>44</sup> A. T. 피어선, 『성서의 영적 이해』, 24.

<sup>45</sup> A. T. 피어선, 『성경연구의 진수』, 14.

<sup>46</sup> A. T. 피어선, 『성서와 영적 비평』 54-56.

경연구자를 위한 신학하는 마음의 전제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자의 신앙적이며 영적인 특성과 관련되어있다. 이런 그의 모습은 성경을 파괴하려고 시도했던 계몽주의자 볼테르(Voltaire, 1694-1778)와 같은 학자들<sup>47</sup> 그리고 성경을 지나치게 이성적 고등비평 방법에 따라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피어선이 이런 이성의 사용을 무조건 반대하고 비평 방법 자체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성경을 파괴하는 극단적인 방법에 대한 반대이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초자연적인 요소를 의심없이 받아들이라고 자신의 저서『성서와 영적 비평』에서 말한다. 연구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모든 사실들이 절대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가정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전에 들어가는 문은 너무 낮아서 머리를 수그리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다른 축복들처럼 진리는 “좁은 문과 험작한 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를 드러내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수성은 그것이 초자연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고 한다.<sup>48</sup> 피어선은 경건하고 겸손한 사람만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심지어 불순종과 불경건 그리고 감사없는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태도는 저주를 자초한다고 한다.<sup>49</sup> 편견과 적대감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처럼 교만함은 하나님의 마음과 성경의 가르침을 참되게 배우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sup>50</sup>

두 번째로 지적인 진지함이다. 그리고 정직함은 매우 진귀한 자질이다. 올리버 웬델 홈즈는 “고집스러운 마음은 눈의 동공과 같아서 그 위에 빛이 비치면 비칠수록 동공은 오히려 커진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독자들

<sup>47</sup> A. T. 피어선, 『성경연구의 진수』, 20.

<sup>48</sup> A. T. 피어선, 『성경연구의 진수』, 20.

<sup>49</sup> A. T. 피어선, 『성서와 영적 비평』, 35-37.

<sup>50</sup> A. T. 피어선, 『성경연구의 진수』, 19.

이 피터에게 작품을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나고 묻자 그는 먼저 내적인 모든 것이 맑고 깨끗한지 어떤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설명한다. 마찬가지로 내적인 상태의 순결함이 성경연구에 중요한 자세임을 말한다. 피어선은 솔직함의 이중효과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대한 증거가 있음을 주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에 대해 즉각적으로 동의하고 복종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세 번째는 도덕적인 정직함이다. 도덕적으로 진리에 항거하는 어떤 반대가 있다면 어떠한 증거도 그것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도덕적인 장애물들이 우선적으로 길에서 제거되어야만 하는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소경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충하려고 빛을 쏘아 쫓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다. 지적인 성실성과 도덕적인 진실성이 필수적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읽기위해서 이해의 맑은 눈과 회미하지 않는 마음의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또 이런 정신적인 자질은 신성한 말씀 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한다.<sup>51</sup> 피어선은 말하기를 공정한 판단과 깨끗한 양심, 그리고 순종적인 의지가 열려 있는 눈이 필요하다고 한다. 반대로 불공정한 판단과 부패한 양심 그리고 빼뚫어진 의지에 대하여 성경은 눈이 가려졌다고 한다.<sup>52</sup>

피어선은 성경을 연구하는 태도에 있어서 진지함, 정직함 그리고 초자연적인 요소를 의심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당연한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문을 연다고 한다. 이런 피어선의 태도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모습을 갖도록 촉구한다.

<sup>51</sup> A. T. 피어선, 『성서의 영적 이해』, 24.

<sup>52</sup> A. T. 피어선, 『성경연구의 진수』, 18.



### 3. 성경연구를 위한 법칙

피어선은 성경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법칙<sup>53</sup>을 말한다. 이것은 성경연구를 위한 실제적인 원리이다. 피어선은 철학, 과학, 시 또는 역사에 관한 어떤 책도 이러한 법칙들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법칙들 없이는 아무도 성경의 진정한 뜻을 간파할 수 없다고 한다. 피어선의 아들 델라반 피어선은 자신의 책『아더 피어선의 생애와 신앙』에서 A. T. 피어선 박사의 성경연구의 법칙을 6가지로 소개하는데 그것들은 탐구, 비교, 기도, 믿음, 명상 그리고 순종의 원리이다.

첫째는 탐구(탐색)이다. 이것은 발굴하는 것인데 불가사의한 것은 해변가에 있는 조개처럼 표면에 나와 있지 않고 광맥 속에 있는 금덩어리처럼 숨어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파내어져야 한다고 한다. 피어선은 하나님이 연구를 통해 자신의 말씀의 숨겨진 보화를 캐내도록 의도하였음에 틀림없다고 하면서 그 보화를 성경 전체에 흩어 놓음으로 모든 중요한 실질적인 주제들에 대하여 탐구하도록 자극하셨다고 한다. 탐구는 분석과 종합으로 구성된 그의 연구의 근본적인 과정이다.<sup>54</sup>

그의 저서『성서의 영적 이해』 제 9장 ‘성경과 보혈: 속죄의 사상’이라는 제목 하에서 탐색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탐색이 필요한 것은 거룩한 성경 속에 담겨 있는 진리는 종종 표면에 나타나 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문자는 죽은 것이요, 그 안에 흐르는 영이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 성경 속에서 우리를 교육하고 가르치고 위로하는 최고의 진리는 피상적으로 끄집어내거나 주워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것은 금광을 곡괭이로 파는 것처럼 파내어야 만 하는 것이라고 한다. 피

<sup>53</sup> D. L. 피어선, 『아더 피어선의 생애와 신앙』, 356. 피어선의 저서『성서의 영적 이해』 페이지 191 에서는 3가지 즉 탐색과 묵상 그리고 비교만 주장한다.

<sup>54</sup> A. T. 피어선, 『성경연구의 진수』, 226.

어선의 두 번의 진술들을 통해서 볼 때 그의 성경 연구의 원리로서 탐구에 대한 이해 속에는 알레고리(allegory)의 흔적이 나타난다. 이 표현들은 오리겐(Origen)의 작품『첫 번째 원리에 관하여』(*On First Principles*)에 있는 내용과 거의 유사하며 성경의 3중적 의미의 해석 방법에 사용되었던 것이다. 표현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피어선은 오리겐의 알레고리 해석의 원칙을 따르기 보다는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데 우리의 진정한 연구를 통하여 그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그의 열정이 담겨있음을 볼 수 있다. 그가 말하는 진리는 영적인 진리뿐만 아니라 창조와 우주 그리고 자연의 모든 원리까지를 성경에서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는 문자라는 표면에 나타나지 않고 더욱 깊게 파내어야 한다고 피어선이 항상 주장한다면 알레고리 해석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비교이다. 이것은 피어선이 매우 강조하는 것이다. 성경 전체의 내용과 비교해 보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은 성경의 유추(*analogia scripturae*)라는 신학의 원리이다. 비교란 성경의 구절들이 서로 비취 주는 가르침들을 나란히 놓아 보는 것이라고 한다. 성경은 하나의 체계로 구체화된 진리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 안에 진리를 내포하고 있으며, 어떤 체계를 세우기 위한 자료를 공급해 주는 것과 같다고 한다. 달리 표현하면 건축물에 사용된 돌이 아니라 채석장에 있는 돌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 영적인 것들을 서로 대조하고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예기치 못했던 것들이 서로 상응관계가 있고 일치하며, 서로 적용됨을 발견하게 된다고 한다. 그 돌들이 정해진 위치에 놓여져 빌딩이 되듯이 분명하게 미리 생각된 신적 계획에 의하여 성경의 자료들을 가지고 진리의 체계는 건설된다고 말한다.<sup>55</sup>

<sup>55</sup> A. T. 피어선, 『성서의 영적 이해』, 192.

피어선은 하나의 본문을 따로 뽑아내서 이해할 때 실수를 하게 되고, 교리와 실행에 있어서의 잘못은 성경 전체의 테스트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피어선은 비교에 대한 성경적 예를 소경 바디메오와 세리 삭개오에 대한 비교를 한다. 이 두 기사들은 동류의 기사로 장 구분에 의해 분할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서로 다른 인간의 필요성, 그리스도에 접근하는 방식, 그리고 주님이 영혼을 다루는 방식을 보여주는데, 서로 다른 것 뒤에 숨겨져 있는 주님의 사랑, 동정심, 구원하며 도울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놀라운 일치를 보여준다고 한다. 율법과 은혜에 대한 대조는 옛것과 새것, 이전 것과 후의 것, 두 언약, 악한 현세대와 앞으로 올 세대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해한다.<sup>56</sup>

한 구절이 다른 구절을 해석하거나 다른 구절로부터 얻은 잘못된 인상을 교정할 수 있도록 성경과 성경을 비교해야 한다고 한다. 여기서 그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원리를 말하는 것이다. 성경의 유추는 필연적으로 성경 해석과 관련되어진다. 루터나 칼빈에 의해 중요하게 사용되었던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Scriptura sui ipsius interpres*)하는 원리는 피어선에게도 사용되었다. 피어선 역시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성경의 권위와 해석에 있어서 그들의 사상의 맥을 잇고 있다. 피어선은 말하기를 성경에 대한 가장 좋은 주석은 성경 자체라고 하며, 성경은 자체가 해석자가 되어 그 신비한 것들을 밝힌다고 한다.<sup>57</sup>

성경의 유추에 대한 또 다른 예로서 피어선은 하나님의 무한이라는 속성을 설명하는데, 이 무한이라는 단어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잘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 무한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한계가 없다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한은 불변과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다른 어디

<sup>56</sup> A. T. 피어선, 『성경연구의 진수』, 252.

<sup>57</sup> A. T. 피어선, 『성경연구의 진수』, 102.

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유추해 낸 것이라고 한다.<sup>58</sup>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의 주석에 큰 영향을 받은 피어선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함으로써 잘못된 성경해석의 오류를 정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어떤 오류라도 따로 분리시켜서 볼 때에는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교리나 실천 상의 오류는 전체 성경을 가지고 시험해보면 반드시 밝혀지게 마련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보아서 한 본문이 다른 본문의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게 하든가, 다른 본문의 올바른 느낌을 확증해주든가, 새로운 각도에서 그 의미를 조명해주고 그 깊이를 열어주도록 해야 할 것 주장한다.<sup>59</sup> 피어선은 성경연구자들에게 요구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의 길을 가게 하라고 한다.<sup>60</sup> 성경의 자기 해석 능력을 언급하여 피어선은 말하기를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그 내용을 해석하고 설명한다고 한다.<sup>61</sup> 바른 성서 연구를 위해 성경 그 자체가 그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말한다.<sup>62</sup> 중요한 교리를 만드는 근거로 어느 한 본문 특히 분명하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본문을 사용하면 온전한 주석이 될 수 없다고 한다.<sup>63</sup>

셋째는 기도이다. 성경연구를 위해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도록 무릎꿇고 기도해야 한다고 한다.<sup>64</sup> 우리의 눈을 열어 당신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한다. 또 영감을 주는 성령님은 설명을 하는 영이라고 한다. 기도는 지적인 눈에 비밀을 밝히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과 관련하여 칼빈 역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기 위하여 성령의

58 A. T. 피어선, 『성서의 영적 이해』, 243-43.

59 A. T. 피어선, 『하나님의 능력』, 안명준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2), 80.

60 A. T. 피어선, 『성경연구의 진수』, 21.

61 A. T. 피어선, 『성경연구의 진수』, 15.

62 A. T. 피어선, 『성경공부의 열쇠』, 홍성국 역 (서울: 보이스사, 1987), 17

63 A. T. 피어선, 『성경연구의 진수』, 390.

64 A. T. 피어선, 『성서의 영적 비판』, 54-56.

조명을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예를들면 칼빈은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 “오 전능한 하나님 우리에게 올바른 판단력이 없을 때, 또 우리 마음이 대낮에 조차 소경이 될때,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빛추사 당신의 말씀의 빛에 들어가게 하소서.”<sup>65</sup> 칼빈은 우리가 성령의 의도에 의해 다스려지기 위하여 기도해야 함을 보여 주었다. 우리는 기도를 함으로써 “올바른 이해를 주시는 성령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sup>66</sup> 칼빈은 성경 해석자는 그의 부족과 무지를 알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성령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을 믿었다.

피어선은 웨스트민스터 총회와 신앙고백서(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에 대해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글레스파이 목사의 기도에 의하면 하나님의 대한 정의 즉 하나님은 영이시며 무한하시고 변함없이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지혜, 공의, 선하심과 진리 또한 영원 불변하시다고 기도하였는데, 피어선은 글레스파이가 이런 하나님의 대한 정의에 대한 교리의 개념을 어떻게 얻었을까? 질문하면서 이것은 이교적인 자료나 인간의 작품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얻게 된 것이라고 한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은 영이시며,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혼자 깨닫게 되었다고 주장한다.<sup>67</sup>

피어선은 베드포드(Bedford)교도소에 갇혀 있던 존 번연 (John Bunyan)과 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겸손하게 기도하며 주의 깊게 연구하면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은 고독 중에서도 오직 성경만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풍요롭게 발견한 사람들이라고 한다.<sup>68</sup> 기도없이 경건한 마음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은 아무리

<sup>65</sup> John Calvin, *Commentaries on Habakkuk* (Grand Rapids: Baker, 1979), 124.

<sup>66</sup> Calvin, *Commentaries on Psalms* (Grand Rapids: Baker, 1979), 887.

<sup>67</sup> A. T. 피어선, 『성서의 영적 이해』, 243.

<sup>68</sup> A. T. 피어선, 『성경연구의 진수』, 16.

뛰어난 통찰력을 가질지라도 실상 눈먼 상태에서 더듬거리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며, 겸손한 사람들이 놀라운 일들을 보며 그 신비스러운 일에 전문가가 된다고 한다. 그렇다고 피어선은 기도만 하고 비판적인 연구를 하지 말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적절하게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파괴적인 분석의 방법을 경고하는 것이다.<sup>69</sup> 스스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탐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함을 발견하고 금은 보석을 캐내어서 거두어들일 것이라고 한다.<sup>70</sup>

넷째는 믿음이다. 인간의 다른 모든 분야에서 인간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믿는다. 그러나 성스런 계시 속에서 인간은 그들이 믿는 것으로 알게 된다. 여기서 피어선은 신앙이 지식을 추구하는(Anselmus의 표현으로 *fides quaerens intellectum*, Augustine식 표현은 *credo ut intelligam*) 것으로 강조한다. 신앙은 지식을 확실히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한다. 이사야가 아합에게 ‘만일 네가 믿지 않으면, 네가 정녕 서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믿음은 지식을 확실하게 한다. 칼빈은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있다면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인간 이성이 아니라 믿음의 유추(*analogia fidei*)를 주장한다. 믿음의 유추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라고 한다. 피어선 박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Oracles of God)으로 신약에 4번 나타난다고 한다. 첫째, 행 7: 38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라고 불리워졌으며, 둘째 롬 3:2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 인간에게 위탁되어진 것이며 셋째 히 5:12에서 이러한 말씀은 어떤 “원리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가르쳐야 하며, 넷째 벨전 4: 11에서 말씀에 의하여 말하는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것이 모든 설교자와 교사의

<sup>69</sup> A. T. 피어선, 『성경연구의 진수』, 16.

<sup>70</sup> A. T. 피어선, 『성경연구의 진수』, 22.

최고의 목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71</sup> 피어선은 이 네 개의 성귀들은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보기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계시는 살아있고 생명을 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믿음과 실천을 위해 주요한 원리들을 말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sup>72</sup> 피어선은 눅 1:45, 행 27:25, 롬 4:21, 그리고 히 11:11 절을 가지고 믿음에 대한 정의를 종합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신실한 분이 며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며, 그렇게 되리라고 설득당하는 것이며, 판단하는 것이라고 한다.<sup>73</sup>

다섯째는 명상이다. 명상이란 반추와 유사한 과정이 있다고 한다. 성경을 상고함에 따라 그것들로부터 생명의 능력을 끌어냄이 없이 성경을 읽는 것은 소화시키지 못하면서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고 한다. 명상은 우리의 속성, 정신, 마음 그리고 감각, 양심, 의지를 모두 기도하며 수용적인 기초 위에 세우게 함으로 우리의 전존재를 성령님의 계시 앞에 열어 놓게 하는 것이라 한다.<sup>74</sup> 오늘날 영성운동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명상은 감각적이며 신비적이며 영적이지만 이와 달리 피어선은 말씀을 자신의 이해의 체험에 녹이는 것이다. 그것은 성육신 하신 만나를 먹어 영생을 체험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여섯째는 순종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는 순종의 교훈을 배울 수 없다고 한다. ‘그의 뜻을 행하는 자는 그의 가르침을 알 것이다.’ 의심은 언제나 불순종의 결과이며, 당신이 성경에서 어떤 명령을 발견할 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당신의 인격이 되게 하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에 순종하면 그의 뜻은 당신을 더 광범위한 지식으로

<sup>71</sup> A. T. 피어선, 『성서의 영적 이해』, 23.

<sup>72</sup> A. T. 피어선, 『성서의 영적 이해』, 23-24.

<sup>73</sup> A. T. 피어선, 『성경연구의 진수』, 112.

<sup>74</sup> A. T. 피어선, 『성서의 영적 이해』, 191-92

인도할 것이라고 한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순종이 필요하다고 그리스도께서는 선언하셨다고 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피어선은 이 말씀을 영적인 분야에서만 우세한 법칙이기 때문에 지적인 분야에서서는 사실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고 한다. 지적인 영역에서 인간은 그가 사실로서 알고 있는 것만을 믿고, 영적인 영역에서는 그가 믿으므로 그것이 사실임을 알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지적인 영역에서 인간은 알기 때문에 행동하고 영적인 영역에서는 행하기 때문에 알게 된다고 한다.<sup>75</sup> 피어선이 영적인 분야와 지적인 분야를 철저하게 구분하는 것은 이원론적 사고에 빠질 수 있다.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영과 육의 철저한 구분은 알레고리 해석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피어선은 순종은 영적 계시를 받는 기관(organ)이라는 것이라고 하며, 성경을 깨닫는 것은 순종이라는 틀로부터 결코 독립할 수 없으며 성경의 원칙에 부합하며 그 정신에 화합하는 것으로부터 가능해 진다고 한다.<sup>76</sup> 하나님의 법을 따라 걸으며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리의 풍성함을 이해한다.<sup>77</sup>

피어선은 탐구와 명상, 비교, 기도, 믿음, 그리고 순종에 의해 우리가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우리가 성경연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밝히며, 높이며, 영광스럽게 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sup>78</sup>

<sup>75</sup> A. T. 피어선, 『성서와 영적 비평』, 56.

<sup>76</sup> A. T. 피어선, 『성경연구의 진수』, 16.

<sup>77</sup> A. T. 피어선, 『성서와 영적 비평』, 54-56.

<sup>78</sup> A. T. 피어선, 『성경연구의 진수』, 13.



## V. 결론

피어선 박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았던 목사이요 신학자요 선교학자였다. 그는 성경으로 사는 사람이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는 복음을 증거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가 성경 연구 원리를 제시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권위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며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가 소중함을 재발견하게 한다.

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함으로써 그의 목회사역과 선교사역을 감당함으로써 미국과 영국 뿐만 아니라 한국까지 크게 영향을 주었다. 피어선 박사는 모든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는 것을 장려하였다. 성경연구 원리가 그의 신학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자신이 목회에 크게 공헌했으며 세계선교에까지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을 살펴보았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건전한 성경연구 원리의 정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적용하고 살아가도록 도전을 주는 것이다.

오늘날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고 성경의 능력을 무시하는 세대 속에서 한국교회는 흔들리고 있으며 신학의 위상은 자연원리나 과학의 우상 앞에 힘없어 보인다. 그러나 예수께서 천지는 없어져도 자신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바로 피어선은 예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이 연구되어야 하고 그 결과로 올바른 신학의 체계와 교리와 삶이 적용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포스트모던 시대 속에서 사는 기독교인들은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려고 사명을 다했던 A. T. 피어선 박사 모습 속에서 크게 도전을 받아야 할 것이다. 성장도 멈추고 질적으로도 오염되어가는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 피어선의 성경연구의 원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피어선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의 길을 가게 하라. 성경 연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라.

## 〈Abstract〉

# A. T. Pierson's Theological Principle: Focusing on Bible Study

Myung-Jun Ahn

(Pyoentaek University, Systematic Theolog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inciples of Biblical Study of Dr. Arthur T. Pierson, a great evangelist, a great theologian, appeared in the study of the Bible.

I first introduced Dr. Pierson's career and presented his view of the Bible and theological principles. In the beginning of this thesis from the historical documents I introduced how A. T. Pierson came to Korea through the relationship with Underwood. Through the life of Pierson I showed how he loved, studied, and taught the Bible, and what his claiming principles were.

He found the principles of theology at the Bible, through the principles interpreted the Bible. He proposed that in the study of the Bible we first should recognize the inspiration of it, its authority and the reflection of divine will. He understood that this presupposition is essential to study the Bible to recognize the important truth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Bible itself. In the study of the Bible he pointed out that we should have an attitude of sincerity, honesty, and the undoubted acceptance of the supernatural elements before the Word of God so that it opens the door to these people.

Pierson argued we could see that God is the author of the Bible by

investigation and meditation, comparison, prayer, faith, and obedience. Pierson suggested through Bible study, that we have the obligation to honor, reveal, praise, glorify God. By the deep study of the Bible with his firm belief that the Bible is the Word of God he served his pastoral ministry and missions, and had a great influence upon the United States and England, and Korea.

**\* Key Words:** A. T. Pierson, the Bible, the inspiration of the Bible, theological principle, analogy of Scripture, analogy of faith

### 〈참고문헌〉

- 고광국. “피어선의 선교전략과 실제에 관한 연구.” 신학박사학위논문, 평택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2009.
- 김상훈. “피어선 박사의 성경적 설교학.” 『평택대학교논문집』 12 (1999): 55-74.
- 로버트 데이나. 『내가 올때까지 완수하라』. 서울: 도서출판 B&A, 2004.
- \_\_\_\_\_. 『아더 피어선과 복음주의 운동』 박달진 역, 서울: 도서출판 양서각, 1988.
- 신현수. “피어선의 성서관.” 『복음과 신학』 12 (2010): 142-56.
- 안명준. “A. T. Pierson의 성경해석 방법론.” 『조직신학연구』 6 (2005): 104-35.
- \_\_\_\_\_. 『신학적 해석학 (상)』, 서울: 이컴비즈넷, 2005.

- \_\_\_\_\_. 『신학적 해석학 (하)』. 서울: 이컴비즈넷, 2009.
- \_\_\_\_\_. “한국교회의 신학적 문제점”. 『한국교회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 안명준 편. 서울: 이컴비즈넷, 2006.
- 유윤중. “피어선의 문학적 언어학적 성서이해”. 『복음과 신학』 11 (2009): 198-212.
- 이광희. 『피어선 목사의 생애와 사상』. 평택대학교: 피어선기념성경연구원, 1999.
- 이덕주. “피어선기념성경학원 설립과 초기역사(1911-1945)”. 『복음과 신학』 12 (2011): 304-75.
- 피어선, 아더 T. 『고르다우스의 매듭』. 양유성 역. 천안: 아이디프리팅, 2010.
- \_\_\_\_\_. 『지난 반세기의 전진운동』. 안명준 역. 서울: 보이스사, 2008.
- \_\_\_\_\_. 『성서의 영적 삶』. 서울: 보이스사, 2007.
- \_\_\_\_\_. 『하나님의 능력』. 안명준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2.
- \_\_\_\_\_. 『성경연구의 진수』. 홍성국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1.
- \_\_\_\_\_. 『성경공부의 열쇠』. 홍성국 역. 서울: 보이스사, 1987.
- \_\_\_\_\_. 『성서와 영적 비평』. 서울: 보이스사, 1985.
- \_\_\_\_\_. 『성서의 영적 이해』. 서울: 보이스사, 1985,
- 피어선, D. L. 『아더 피어선의 생애와 신앙』. 서울: 보이스사. 1986.
- 조상열. 『피어선기념성경학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ited by John McNeill. Trans.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 \_\_\_\_\_. *Commentary on Habakkuk*. Grand Rapids: Baker, 1979.
- \_\_\_\_\_. *Commentarys on Psalms*. Grand Rapids: Baker, 1979.